SPOT
ISSUE

23 Jan. 2026

DAOL 다올투자증권

(Overweight)

철강

2026년은 기대해 볼만 하다

이정우

철강 I jungwoo@daolfn.com

● 철근 구조조정 시작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생산라인 중 75만톤 설비 폐쇄를 발표하며 국내 철근업계 구조조정 시작. 기존 인천공장 철근 생산능력 155만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며 잔여 생산능력은 80만톤. 알려진 국내 철근 생산능력은 약 1,240만톤으로 6%의 설비가 폐쇄. 또한, 현대제철이 운영 중인 포항 1공장은 특수강 봉강과 철근 생산라인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해당 라인을 철근 전용 생산 라인으로 변경하고 특수강 봉강 생산 라인은 당진제철소로 이전. 동국제강은 일부 생산라인만 운영하는 중으로 약 100만톤의 생산능력을 줄인 상황

● 철근 구조조정은 필연적. 1H26E 내 감축 로드맵 제시

철근업계 구조조정 움직임은 정부의 공급과잉 품목 구조조정 의지와 합치. 2025.11월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데, 철근 생산능력 상위 1,2위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다른 철근 생산기업의 후속적인 조치도 기대.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는 산업통상부 차관이 다시 한번 철근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1H26E 내 철근 사업 재편 감축 로드맵 제시 예정 언급**. 2025.01월부터 11월까지 철근 수요는 685만톤이며 국내 철강 가동률이 60% 이하로 하락한 상황으로 구조조정은 필연적. 업계의 가동률 하락으로 철근 유통가격은 65만원을 바닥으로 72만원까지 반등한 바 있어,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시 추가적인 유통가격 상승 가능

● 업황의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건설업황의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철근 판매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정 부분의 판매량 회복 역시 가능. 2025.10월~12월까지 철근 수출량은 각각 3.0만톤, 1.3만톤, 4.1만톤. 2022년~2024년 월평균 철근 수출량 대비 큰 폭 상승(2022년 2.8천톤, 2023년 1.8천톤, 2024년 3.3천톤). 2025.10월~12월 수출량을 연율화 시 국내 철근 수요 대비 약 4%로 업황 회복 지연에도 판매량 증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 중

● 2025년보다 기대되는 2026년

철강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 최선호주 현대제철 유지. 산재된 모멘텀들의 실체화를 기대. 1) 열연 수입산 재고 소진으로 반덤핑 효과 발현해 판매량 증가와 판가 상승, 2) 중국의 감산 기조 지속(2025년 중국 조강생산량 YoY -4.4% 기록)와 구조조정 구체화, 3) 철근업계의 구조조정 시작으로 2025년 대비 2026년 업황 반등을 기대

Fig. 1: 2026년 경제성장전략: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철강 】

○ 중점 조정대상인 철근 사업재편 등 감축 로드맵 제시('26.上)

○ 신성장원천기술 추가·확대*하고, 철강 AX 강화** 등 공정관리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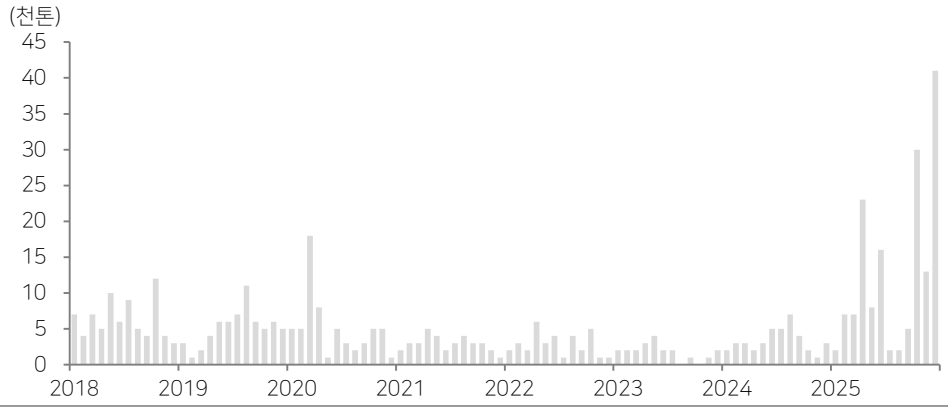
*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정 기술 등

** AI 기반 공정관리(예: 제철공정 AI 고위험 작업 자율로봇 기술개발), 철강산업 AI 융합 실증허브 구축 등

○ 수소환원제철 실증 R&D 중점 추진하고,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및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 마련('26.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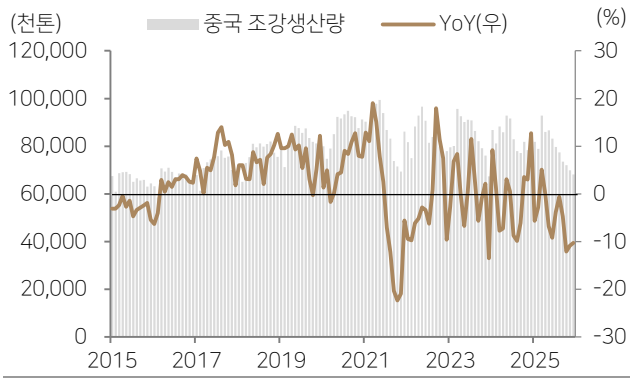
Source: 한국철강협회, 다올투자증권

Fig. 2: 철근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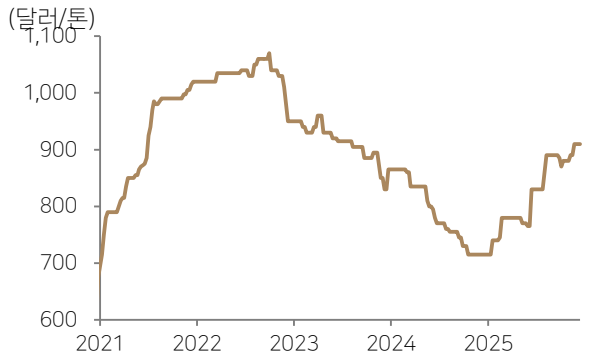
Source: 한국철강협회,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3: 중국 조강생산량 및 증가율 추이



Source: Bloombeg, CISA, 다올투자증권

Fig. 4: 미국 철근 유통가격 추이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 SUSPENDED: 기업가치 전망에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진 경우, 분석 잠정적 중단. 적정주가 미제시.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